

三國期 古墳研究에 있어서 共通된 問題意識으로서는 그 發生要因이라든가 年代適用 및 分布上的 地域性的 問題 또는 當時의 國家構造와 身分的·社會的 背景에 대한 解明과 같은 面을 들 수 있겠다. 즉 다시 말하여 古墳研究을 古代史研究의 側面에 定着시킨 作業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것이 要望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古墳 以外の 住居址·聚落址 혹은 各種生産址와 같은 一般民衆의 生活과 直結된 遺蹟에 대하여 調査의 範圍를 擴大시킴으로써 歷史考古學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研究方向이 確立되도록 보다 더 眞摯한 努力이 傾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考古學의 立場에서 古代史의 올바른 認識에 寄與하기 위해 必要한 里程標를 하나하나 堅實하게 構築해 나가는 眞摯한 學問的 態度가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할 수 있겠다.

※ 本稿는 지난 五月三〇日 日本學會에서 主管한 第十八回 全國歷史學大會에서 「光復三〇年 韓國歷史學界의 反省과 方向」이란 共同主題로 發表한 考古學 분야의 要旨임을 밝힌다.

光復三〇年 韓國美術史 學界의 反省과 方向

鄭 永 鎬

韓國美術史學界를 돌이켜 볼 때 故 又玄 高裕燮先生의 偉業에 대한 말
이 앞서야 되겠다.

先生께서 당시 日帝侵略期에 있어 여러가지 惡條件 가운데에서도 唯
一한 開拓者로서 一生을 美術史研究에 바치셨다 함은 周知의 사실이다.

당시 韓國人으로서는 唯一하게 日本人들에 끼어 京城帝大 法文學部에서 「美學及 美術史」를 전공하시었고 修學 후 同 研究室에서의 研究生活과 一九三三年 이후 一九四四年 六月 二六日 他界하실 때까지 開城博物館長으로 계시면서 오로지 文獻調査 및 現地踏查로서의 資料의 蒐集과 整理로 韓國美術史研究의 基礎를 닦아 놓았다. 例컨대 一九六七年 五月 十一월에 이미 이곳을 踏查하시어 「大王岩의 노래」 四節을 지으신 바 있다. 그리하여 이렇듯 偉大한 先生의 業績을 崇拜하면서 계승하여 八·一五光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二

光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三十年間을 韓國美術史研究에 있어서는筆者 나름대로 研究의 着手期, 進入期, 初期的인 段階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으니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研究 着手期(一九四五—六·二五動亂)

1. 先驅者들의 활동

(1) 又玄先生의 遺稿를 整理하여 遺著를 刊行하였는 바 현재까지 十一卷의 著書가 나왔다. 즉 先生에게 師事하던 黃壽永, 秦弘燮, 崔淳雨 諸氏의 遺稿整理로 「松都古蹟」(一九四六年), 「朝鮮塔婆의 研究」(一九四八年), 「朝鮮美術文化史論叢」(一九四九年), 「高麗靑瓷」(一九五四年), 「餞別의 瓶」(一九五八年), 「朝國美術史及 美學論攷」(一九六三年) 등을 비롯하여 十一冊의 遺著를 刊行하였으며 아직도 冊子化하지 못한 나머지 遺稿가 多少있는데 이 모든 先生의 遺稿는 현재 東國大學校 博物館에서 整理保管하고 있다.

筆者가 실정한 이 時期에 있어서 韓國美術史 關係著書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즉 尹喜淳氏의 「朝鮮美術史研究」(一九四六年), 金永基氏의 「朝鮮美術史」(一九四八年), 金瑤俊氏의 「朝鮮美術大要」(一九四九年), 李如星氏의 「朝鮮服飾考」(一九四九年) 등이 出刊되었지만 역시 폭이 넓고 研究가 깊었던 著書로서는 又玄先生의 遺著들이고 이 遺著가 당시와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美術史研究의 貴重한 文獻

이 될 것이다.

(2) 國立博物館을 중심한 諸研究의 着手

國立博物館 研究陣이 중심이 되어 古代美術을 研究하였으며 그 결과로 金元龍氏의 「新羅土器의 研究」 李弘植氏의 「韓國古文化論攷」 등이 出刊 되었다.

(3) 個別的인 美術品蒐集 確保事業

故澗松 全鏐弼先生의 偉業으로 오늘날 韓國民族美術研究所의 基礎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즉 우리나라에는 日帝侵略期부터 많은 美術品蒐集家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을 通稱하여 骨董家 骨董品蒐集家라 하고 있지만 澗松先生께서는 이들 骨董家와는 다른 蒐集家로서 뿐만 아니라 美術史家로서의 眼目이 높고 또한 넓으신 분이므로 先生께서 우리나라 최초의 美術大學建立을 계획하였던 것으로도 미지알 수 있으며 한편 先生으로 인해 國外로 流出되려는 民族文化財가 얼마나 救出 確保되었는가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4) 諸先覺者의 調査事業

個人中心보다는 國立博物館 등의 기관에서 調査事業이 진행되었는데 一九四七年度の 法堂坊古墳壁畫 發見調査(李弘植·韓國古文化論攷 참조)와 一九四八年度の 高麗興王寺址의 調査(黃壽永·高麗興王寺址調査 참조)——白性郁博士頌壽紀念論文集 所收) 등은 그 대표라 하겠다.

II、研究 進入期(動亂이후—一九六八年)

動亂을 겪고 서울에 收復한 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美術史學會가 創立된 一九六八年까지를 研究의 進入期로 보고 그 동안의 여러가지 內容을 살펴 본다.

1、美術史學徒들의 續出

各大學의 大學院에서 美術史를 專攻하여 碩士學位를 取得한 美術史學徒들이 出身學校나 또는 다른 研究機關에서 研究를 하게 되므로써 美術史研究의 분위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니 이들 美術史專攻의 大學院出身者들이란 崔成鳳(東國大, 一九五七年), 孫景穗(梨花女大, 一九六一年), 閔庚淑(梨花女大, 一九六二年), 姜敬淑(梨花女大, 一九六三年), 金和英(梨花女大, 一九六五年), 文明大(慶北大 一九六六年)

鄭明鎬(東國大, 一九六八年) 諸氏라 하겠다.

2、各機關에서의 遺蹟 遺物 調査 및 整理研究

國立機關을 비롯하여 公共機關과 私學團體 등에서 自발적인 踏査와 研究가 시작되었다.

(1) 國立博物館 美術課에서 調査研究

① 遺蹟의 發掘調査……例컨대 全南 康津郡 大口面 沙堂里의 靑瓷窯址 發掘調査와 京畿道 廣州郡 道馬里의 靑華白磁窯址 發掘調査 등.

② 學術誌의 刊行……「美術資料」를 一九六〇년에 創刊, 현재까지 十七號를 發行.

(2) 韓國大學博物館協會의 發足과 活動

① 一九六一年 五月에 發足하여 每年 各大學博物館이 聯合하여 特別展示會를 열고 學術講演會 등을 갖는다.

② 各大學博物館別로 遺蹟의 發掘調査, 遺蹟 遺物의 地表調査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報告書에 소개함.

③ 學術誌의 刊行……「古文化」를 一九六二年에 創刊, 현재까지 十三號를 刊行.

(3) 考古美術同人會의 發足과 活動

① 美術史研究者들의 個別的인 접촉에서 一九六〇年 八月 十五日 考古美術同人會가 發足, 同好誌인 「考古美術」一號를 刊行(創刊同人으로서는 金元龍, 尹武炳, 全鏐弼, 秦弘燮, 崔淳雨, 洪思俊, 黃壽永, 鄭永鎬 현재까지 一二五號를 刊行하여 千餘件의 새로운 資料를 소개하였다.

② 考古美術資料集 二十二冊을 刊行……學術誌 「考古美術」 이외에 考古美術資料集으로서 金石遺文 등 새로운 資料를 엮어 二十二卷을 出刊.

③ 個別的인 現地踏査와 資料整理……同人들은 各地에서 各己分野대로 遺蹟遺物을 調査하여 그 새로운 資料를 대부분 「考古美術」에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美術史專攻의 大學院出身者들은 모두 同人會員이 되어서 활약하기에 이르렀다.

(4) 新羅五岳綜合學術調查團의 事業

① 한국일보社 主管으로 一九六四年 十月 發足(團長 李相佰, 後任 金基序博士)

② 統一新羅時代에 唐의 五岳을 본 받은 五岳(東岳||吐含山, 西岳||鷄龍山, 南岳||智異山, 北岳||太白山, 中岳||八公山) 地域을 年次的으로 調査...: 主로 造形美術品과 其他 考古學的 資料를 現地踏查에서 索出하는 作業이었는데 例컨대 東海中의 文武大王海 中陵寢의 확인도 調査團의 業績 중 하나라고 하겠다.

(5) 新羅三山學術調查團의 事業

① 한국일보社 主管으로 一九六七年 五月에 發足(團長..金序基博士)
② 三山이란 三國遺事에 보이는 大祀를 지내던 古新羅時代의 鎮山으로 이 三山地域(慶州, 永川, 淸道)의 遺蹟 遺物을 調査하는 作業이 年次的으로 進行되어 慶州 狼山 西麓의 陵只塔, 斷石山, 永川菁提碑 등의 發見調査 및 發掘調査로 많은 造形美術品이 索出되었다.

Ⅲ, 研究初期(一九六九年—現在)

一九六八年 十一月 「考古美術」 一〇〇號의 發行과 더불어 「考古美術同人會」를 發展的으로 解體하여 韓國美術史學會를 創立하였는바 이때부터 本格的인 資料의 蒐集과 整理作業이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1, 美術史學徒들의 續出

國內에서 弘益大 大學院, 檀國大 大學院 出身者를 비롯 海外留學生(安輝潛, 金理邦 등)이 歸國하여 이들의 앞으로의 研究活動이 크게 기대 된다.

2, 各機關에서의 資料蒐集 및 整理

(1) 國立中央博物館 美術課

① 遺蹟의 發掘調査를 진행...: 鄭良謨, 李准求氏가 중심이 되어 各地의 陶窯址를 發掘調査함.

② 各種 研究書의 刊行...: 發掘 이외에 地表調査와 특히 各寺刹의 佛畫를 調査하여 「韓國의 佛敎繪畫」(松廣寺편)을 刊行한 바 있다.

③ 各種 特別展示會를 열어서 이 方面研究의 새 資料를 제공해주는

作業을 進行하고 있는바 특히 一九七三年度의 「韓國美術二千年 展」은 그 代表的인 特別展이라 하겠다.

(2) 文公部 文化財管理局의 事業

金正基, 孟仁在, 李浩官 諸氏를 중심으로 各種 調査, 刊行事業이 進行되고 있음.

① 各種 美術工藝 調査...: 全國寺刹에 散在한 梵鐘을 비롯하여 各種 佛具, 특히 金屬工藝品을 年次的으로 調査하고 있는 한편 慶州南山佛蹟을 비롯한 各地方의 地表調査를 차례로 調査하고 있는 바 이러한 調査는 當局에서 作成한 全國遺蹟目録에 의하고 있다.
② 各種 報告書의 刊行...: 위와 같은 調査事業을 進行하여 石窟庵, 武寧王陵, 天馬塚 등의 報告書刊行으로 많은 美術品을 소개하고 있다.

(3) 韓國美術史學會의 發足

一九六八年에 發足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國內外 約五百名의 會員을 확보하고 많은 活動을 전개하고 있다.

① 會誌 및 資料集의 刊行...: 學術誌「考古美術」을 刊行하는 한편 資料集을 계속 정리하고 있으며 「考古美術」 一〇〇號까지의 合本 刊行도 서두르고 있다.

② 研究發表...: 年間 數回 研究發表를 進行하고 있다.

③ 地方의 遺蹟 遺物調査...: 會員 各者의 調査로서 많은 資料가 蒐集되고 있다.

(4) 韓國民族美術研究所의 活動

各種展示와 刊行事業을 進行중인 바 年二回씩 현재까지 八回 八冊을 刊行하였다.

(5) 에밀레 美術館

展示會와 刊行事業으로 몇冊의 圖錄을 出刊함.

3, 個別的인 調査, 研究, 刊行의 추진

(1) 「韓國美術史」(金元龍), 「韓國繪畫大觀」(故劉復烈), 「韓國繪畫史」(李用熙), 「韓國佛像의 研究」(黃壽永), 三國時代 佛敎美術(秦弘燮), 「新羅時代 石造浮屠研究」(鄭永鎬) 등의 著書

(2) 各大學博物館에서 資料整理、研究內容集成
 例컨대 忠南大 博物館에서의 「百濟瓦塼圖譜」(黃壽永、金和英、成周鐸) 刊行。

(3) 各文獻(三國史記、三國遺事、東國輿地勝覽 등)에 보이는 遺蹟 遺物の 實證 등
 현재까지 五十五件을 現地調査에서 確認(鄭永鎬가 進行하고 있음)。

(4) 檀國大 博物館의 地方調査 進行은 현재까지 十八個 地區를 調査하였음。
 東國大 博物館의 佛教美術 調査研究——例컨대 蔚山 蔚州地域의 佛蹟 및 保寧 聖住寺址의 調査 등。

梨花女大 博文館의 安東地區、全國 古墳壁畫調査 등

(5) 韓國美術全集 全十五卷 完刊(同和出版社)
 金元龍、金正基、李慶成、任昌淳、鄭永鎬、鄭良謨、秦弘燮、崔淳雨、韓炳三、黃壽永 諸氏의 執筆。

三

결론적으로 말하여,

첫째, 美術史研究는 아직까지 初期的인 단계로서 一九七〇年代(즉 一九八〇년까지)까지를 資料의 索出 調査 蒐集期로 본다. 그러므로 本格的인 研究는 一九八〇年代에 들면서 資料의 整理로부터 着手될 것이다.

1、地方에 散在한 諸資料가 아직도 山積하여 이들의 學術的인 調査가 時急하며

2、앞으로 五年間(一九八〇년까지) 全國的인 地表調査를 強行、資料의 蒐集整理가 時急한데

3、여기에는 個人보다도 國家的인 對策이 緊要하다. 그 理由는 人的인 확보 經濟的인 面 地方과의 行政的인 연락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美術史學徒의 養成

1、國家的인 施策이 要望……人材養成이 緊要하다.

2、各大學에서의 養成……學部 및 大學院에서의 重點的인 養成

※ 特別이 方面은 ① 體力 ② 忍耐、努力、③ 經濟的인 諸條件이 갖추어져야 될 것인바 대부분의 美術史學徒들이 그렇지 못하여 中途에서 研究를 포기하고 있음이 안타깝다.

셋째, 各分野別의 專門研究가 필요

佛教美術을 위치하여 繪畫、彫刻工藝 建築 등 各分野에 걸친 專門化가 필요하며, 그리하여 國內는 물론 國外的 資料蒐集 整理로 各己 體系化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의 研究發表論旨는 새로운 角度로 고쳐야 할 것이다.

1、資料紹介 2、調査報告를 進行하면서 3、研究論文 즉 記錄 現地 踏查筆者의 理論이 綜合된 內容을 執筆할 단계. 그러나 美術史는 어디까지나 遺蹟 遺物(造形美術)이 위주이기 때문에 段階的인 考察이 필요하며 尙급한 速斷과 尙급한 發表 無秩序한 論文化는 삼가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唯一의 本 韓國美術史學會가

① 人材 養成의 바탕

② 調査、整理、發表

③ 특히 美術史 用語의 統一 등, 주목을 이루어 進行해 나가야 될 것 이라는 큰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 本稿는 지난 五月 三〇日 日本學會에서 主管했던 第十八回 全國 歷史學 大會에서 「光復三〇年 韓國歷史學界의 反省과 方向」이 란 共同主題로 發表한 美術史 분야의 要旨임을 밝혀둔다.